



과학기술은 길게, 그리고 넓게 보아야...



글 | 이태섭 _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과학기술 중심사회로의 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04년에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출범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독창적 원천 핵심기술 개발을 추구해야 하는 창조형 기술혁신체계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수단의 효과가 선진 과학기술 모방 단계였던 추격형 기술혁신체계에서와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생될 수만은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 성과'라는 것은 우수한 과학기술자가 열정과 애정을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에 몰입하여도 평생 겨우 몇 번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업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은 오랜 기간 고민해온 문제의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의외의 순간에, 의외의 장소에서 얻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10년, 20년 후를 기대하며 사회적 존경과 애정이 담긴 투자를 통해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 비로소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긴 안목과 애정을 가지고 육성해야 한다.

일본이 제3기(2006~2010)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일본의 미래를 먹여 살릴 10대 기간기술을 보면 우리로서는 다소 의외로 느껴지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 세계의 위성 관측자료를 통합하여 해양, 대기, 육지 등 지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자 하는 '지구 통합관측 시스템'과 해저 지형 및 지질자원 탐사 장치인 '해저탐사시스템'이 그것인데, 우리 정부가 2003년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차량 공개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2006년 11월 29일)

에 5~10년 후를 먹여 살릴 미래성장 동력 분야로서 주로 IT, BT 등 최근 태동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진다.

이 두 가지 기술은 인류 공통의 과제인 에너지 문제와 지구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로서, '성장동력의 확보' 보다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 기준을 배경으로 10대 기간기술로서 선정된 것이다. 물론 일본이 안고 있는 지질환경적인 위험 요소도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미래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핵적이고 안전한 국토환경 보전'은 과학기술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자연재해나 환경오염에 취약하며, 부존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기준 이외의 보다 넓은 공익적 가치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㉞